

이주자의 꿈과 삶*

- 송상욱 작품을 중심으로 -

조 갑 상**

차 례

I. 서론: 연구목적 및 방법
II. 본론

III. 결론

I. 서론: 연구목적 및 방법

오늘날 우리는 이산과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남북분단으로 인한 이산의 고통이 반세기가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현실과 한민족 전체인구의 7.5%가 해외에 삶의 등지를 내리고 있다는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고국을 떠나 이국 땅에서 살고있는 해외동포가 151개국 565만 명을 상회하며 한민족 전체 인구를 7500만 명으로 볼 때 외국 거주율은 7.5%에 달하는데 이는 중국이나 인도, 일본을 앞지르는 수치라고 한다.¹⁾ 20세기 후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주민을 낳은 국가인 것이다.

19세기부터 시작되어 강점 이후 본격화된 해외이주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 이 논문은 2003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지원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최원식, 『민족문학과 디아스포라』, 『창작과비평』, 2003년 봄호, 25쪽에서 재인용.

등을 주 대상국가로 하다 교동의 발달과 해당국가의 이민법의 완화조치 여부에 따라 그 대상국가도 확대되었다. 특히 한국전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미국으로의 이주는 유럽국가 중심의 국가별 인종별 할당제를 폐지한 1965년 하트-셀러법(the Hart-Celler Act)이 통과되면서 그 숫자가 현격히 늘기 시작하여 이민 100주년을 넘긴 이즘에는 200만 명을 상회한다고 한다.²⁾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주의 문제는 단순한 사회현상을 넘어 의식의 한 측면으로 자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주,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송상옥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송상옥은 1938년 일본 토야마현에서 태어나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재학 중이던 195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검은 이빨」이 입선되고 『사상계』지에 「제4악장」이 추천되어 문단에 나온 이래 단편집 『흑색 그리스도』(1975), 『우리 어머니를 아시나요』(1978), 『떠도는 심장』(1979)외에 장편 『환상살인』(1971)과 『겨울 무지개』(1981) 등을 발표한 뒤 1981년 미국으로 이주한 작가이다. 이주 이후에도 그는 미주한국일보사에 근무하면서 문학활동을 계속하여 단편집 『소리』(범우사, 1987), 장편 『세 도시 이야기』(여명, 1995), 단편집 『광화문과 햄버거와 파피꽃』(창작과비평사, 1996)을 펴냈다.

미국에 한정되어 있지만, 해외 이주의 문제를 송상옥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은 그의 작가로서의 독특한 위치 때문이다. 송상옥이 독특한 위치에 있다 함은 우선 그가 한국에서 작품성을 검정 받은 중견작가로 활동하다³⁾ 미국으로 이주한 재미작가⁴⁾라는 점에에서이다. 거기다 그는 13년을 미국에서 살다 한국으

2) 이동하, 정효구, 『재미한인문학연구』, 월인, 2003년, 4쪽, 295쪽.

3) 이주 전 송상옥 작품세계에 대한 평가는 1976년 『창작과비평』 봄호(통권39호)에 게재된 김인환의 『흑색그리스도』에 대한 서평, 1978년 발행된 삼성출판사판 한국현대문학전집 44권의 윤재근의 글, 1981년 문예출판사의 이태동 평론집인 『부조리와 인간의식』의 송상옥 편을 우선 참고할 수 있다.

4) 최근 재미한인소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이동하는 한글로 작품활동을 하는 재미한인소설가들의 작품이 '경시'당하는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소박한 아마추어적인 작품"이 "꽤 많은 편입이 사실"이지만, 진지한 문학적 검토의 대상이 되어 마땅한 작품도 있으며, "한국에서 이미 소설가로 등단하여 활동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창작을 계속하는 작가"가 거기에 해당될 거라면서 그 대표적인 경우로 송상옥을 들고 있다. 이동하, 앞의 책, 297쪽.

로의 역이주를 실행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살고 있다는 점에서 이주와 역이주에 따른 체험과 고뇌를 겪은 작가이다.

지역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그는 '재미 한인 소설가'에 속한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작가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영어 사용작가, 영어와 한국어 동시 사용작가, 한국어 사용작가가 그것이다. 영어 사용작가로는 김은국이나 최근의 이창래 등을 떠올릴 수 있고, 동시 사용작가로는 <꽃신>의 작가 김용익이 있다. 그리고 송상옥과 같이 한국어로만 창작하는 작가가 있다. 재외한인작가들의 작품들을 — 특히 언어사용문제가 그 중심에 있는데 — 한국문학, 민족문학에 포함시키느냐의 문제⁵⁾는 본고의 논지의 중심에서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에 살면서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한글로 작품을 발표하는 작가 송상옥'의 작품세계를 통해 이주의 문제를 연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결국 본고에서는 그의 작품을 통해 20세기 중 후반부터 본격화된 미국으로의 이주가 어떤 동기와 원인에 의해 결행되고, 미국에서의 한인들의 삶과 고뇌는 무엇이며, 역이주의 동기와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주 후 송상옥이 발표한 작품세계가 다양한 이주자들의 삶을 다루고는 있지만, 자전적 성격의 작품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작가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인물들을 중심에 놓고 논제에 접근해 가도록 하겠다.

연구대상으로서의 텍스트의 성격과 텍스트 상호간의 내적 연관관계를 점검해 보겠다.

28편의 작품이 수록된 『소리』는 작가의 미국 이주 후 첫 창작집이다. 한 권의 단편집에 이토록 많은 작품이 수록된 것은 작품 발표의 매체와 관계되는데

5) 이런 논의의 중심에 홍기삼의 「재외 한국인 문학개관」, 『한국현대문학 50년』(유종호 외), 민음사, 1995, 507-525쪽과 「한국문학과 재외한국인문학」, 『작가연구』3호, 새미, 10-44쪽이 있다. 그는 가와무라 미나토라는 일본 비평가의 논의를 빌려 사용언어에 관계없이 '누가' '무엇을' 썼느냐에 중점을 두어 재외 한국인문학을 한국문학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민족문학론의 확장의 입장에서 쓴 유희석의 「한국계 미국작가들의 현주소」, 『창작과비평』, 2002년 여름호, 265-291쪽에서는 영어사용 작가들을, 최원식의 「민족문학과 디아스포라」, 『창작과비평』, 2003년 봄호, 16-39쪽에서는 영어와 일어로 쓰여진 작품들과 한글로 쓰여진 재외한국작가들의 작품들을 같이 다루고 있다.

두 편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그가 근무한 『미주 한국일보』에 게재되었다. 즉 신문에 게재되다 보니 길이가 일반적 단편보다 조금씩 짧아진 것이다. 그러면서 작품의 등장인물들과 그들이 겪는 갈등들은 당시 재미 한인사회에서 사회 문제화된 것들이 많다. 다양한 한인들의 삶을 신문기자 혹은 작가의 눈으로 살피고 있는 글들은 이민 4년만에 쓰여져 (82년부터 86년까지) 이민사회와 미국에 대한 작가의 초기 의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인물들의 단편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사건은 단순하면서 격렬하며 그것은 대체적으로 작가의 비판적 시선에 의해서 드러난다.

두 번째 쓴 작품은 『세 도시 이야기』라는 두 권 짜리 장편이다. 제목의 세 도시는 주인공 이영규가 성장한 마산과 대학을 다니고 직장생활을 하는 서울, 그리고 그가 이주한 로스앤젤레스이다. 공간의 이동이 말해주듯 이 작품은 작가의 자전적인 성격이 짙다. 역이주를 결심하고 지인들을 만나면서 이민의 삶을 생각해 보고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작품은 회고형식이 주는 안정감과 더불어 평면적 서술의 느릿함 속에서 전개된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시공간이 교차하기에 이민에 대한 복합적인 접근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11편의 단편이 수록된 『광화문과 햄버거와 파피꽃』(1996년)에는 안정된 삶에서 이주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작품들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초기의 『소리』에서 보여준 비판적인 격렬성은 사라지고 균형 잡힌 시선과 목소리가 뚜렷하다. 그러면서 『세 도시 이야기』의 회상성에서 벗어나 미학적 구조미를 가장 크게 획득하고 있기도 하다.

이주 후 발표한 송상옥의 작품들은 자전적인 요소가 강하면서 이주 전과 후의 시간적 계기성을 반복하여 아우른다는 공통성이 있다. 『소리』에서 화자는 신문기자나 작가로 등장하여 이민사회의 여러 면을 살피며, 『세 도시 이야기』의 주인공은 작가 자신의 분신에 가까우며 『광화문과 햄버거와 파피꽃』에서 ‘나’와 ‘그’도 앞서 작품들의 화자나 주인공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런 면에서 해외로의 이주와, 이주한 땅에서의 뿌리 뽑힌 불안감과, 역이주와 거기에 뒤따르는 상실감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 글의 내용에 텍스트들은 상호 호환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II. 본론

1. 선택: 죽기보다 더 어려운 마음의 병

이주, 또는 이민은 자기가 살고 있던 땅, 조상의 선산이 있고, 피붙이와 친구 등이 살고있는 고국과 공동체를 떠나 전혀 다른 인종과 문화, 관습, 체제의 세계로 편입되는 일이다. 식민지화를 전후하여 본격화된 일. 중. 러 세 나라에 집중된 이주는 경제적 이유와 정치적 이유 두 가지 정도로 좁혀질 수 있겠지만, 1970년대를 전후하여 본격화된 미국으로의 이주는 그 이유나 목적이 훨씬 다양하고 복합적일 가능성이 높다. 근대화 이전과 이후의 차이에서 오는 의식구조의 변화와 삶의 조건 변화는 물론이고, 세계, 또는 타국에 대한 거리감의 완화나 통신과 교통수단의 발달 등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그 바람의 씨가 언제부터 그의 마음 한편에 자리잡기 시작했는지는 확실치 않았다. 중학교에 들어가 외국어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어휘에 접하고 깨우치는 동안 이미 싹이 트고 자라고 있었는지, 또 그즈음 전쟁이 휩쓸면서 지구의 다른 쪽에서 온 이국병사들의 모습을 본 것이 물과 거름노릇을 했는지도 몰랐다. 아니 훨씬 전, 아주 어렸을 적에 바다 건너 이웃나라에서 태어나 살다가 부모 따라 유난히 요동치던 바다를 건너 자기 나라라고 워선, 사람 사는 세상이 또 있구나 신기해했을 때 벌써 그게 싹들 자리가 마련되었던 건지.

(〈광화문과 햄버거와 파피꽃〉, 『광화문과 햄버거와 파피꽃』 221쪽)

인용된 작품인 <버려진 방>은 미국으로 이주한 주인공이 한국에서 가져온 책들의 처리문제를 두고 고민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내용이다. 이삿짐의 사본의 삼을 차지하는 책들을 가져왔지만 생활에 쫓기면서 좀처럼 그 책들을 읽을 수도 정리할 수도 없다. 작가이기에 그의 괴로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으며 이런 심적 상태가 주인공으로 하여금 이민을 오게 된 동기를 되짚게 한다. 인물의 헤아림이 막연하듯이 이민의 동기에 어떤 뚜렷한 구체성은 없다. 작가 송상욱 자신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인물들이 나오는 작품들에서 이주의 동기는 인물들 스스로 딱 부러지게 제시하지 못할 만큼 복잡적이고 중층적이다.

성장기와 가족사를 서사의 후경에 두면서 이주와 미국에서 생활, 다시 재이

주의 결심과 결행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자전적 소설인 『세 도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주의 단서들을 추적해보자.

“언제부터 미국에 갈 생각을 했는지는 그 자신도 정확히 기억해 낼 수 없었다.”는 고백처럼 주인공 이영규의 이주 결심의 동기나 과정은 복잡하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비상, 혹은 추락>이라는 장에서 스스로 그는 이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본다. 1) 중고등학교 시절 막연히 어디 먼 나라에 가보았으면 했지만 그 대상국은 미국이 아니라 어린 시절을 보낸 일본이었으며 그 시절은 전쟁으로 형과 큰누나를 잃고 집안이 “어둡고 싸늘했던” 시기였다. 2) 대학을 졸업할 무렵 유학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이 있다. 3) 첫 직장에서 만난 김현웅을 통해서 유학에 대한 열정을, 윤중령을 통해서 해외로의 열린 사고를 보았다. 4) 신문사에 근무하면서 이루어진 몇 차례의 해외여행은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닌 또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걸 생각하게 해주었다.

1)은 이국(일본)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낸 적이 있고 전쟁의 혼란 속에서 가족사적 불행을 겪은 청소년기의 주인공이란 점에서 먼 나라에 대한 동경 심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2)는 주인공이 영문과 출신인데다 개인적인 학구열과 더불어 사회적 열망으로 유학은 매력 있는 문제 거리일 수 있다. 3)은 그가 처음 다닌 직장의 특수성과 관계 있는데 군사정부에서 만든 정책 자문기관인 <해외문제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해외’라는 개념이 일반인들에 비해 가까이 다가올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거기서 만난 윤중령과 김현웅은 해외 이주를 진지한 욕망으로 간직한 사람들이기 주인공에게 심리적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4) 해외여행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1970년대, 기자의 신분으로 몇 차례의 나들이는 이주에 대한 꿈을 실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앞의 이유들 외에도 국내 정치현실이 이주를 결심하게된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영규가 해외문제연구소를 떠나 옮긴 직장은 신문사이다. 처음 월간부에서 일할 때 그는 이른바 언론탄압의 한 모습을 목격한다. 삼선개헌 뒤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다. 신문사의 ‘핵심부서 책임자’로 자리를 옮겼던 김국장이 당국의 눈에 찍혀 월간부로 좌천당한 뒤 청와대 전용기 기사문제로 기관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끝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이다. 윤중

령의 친구인 김국장은 이영규를 신문사로 이끌어준 사람이기에 이영규로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 유능한 언론인을 대낮에도 술에 취해 지내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든 정치현실이 그는 안타깝다.

고등학교 친구인 김용화가 겪은 일은 김국장의 사전보다 훨씬 큰 충격으로 이영규에게 다가왔을 수 있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시간강사를 하면서 기독교 단체의 일을 하던 친구가 기관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나온 것이다. 젊은이들 상대의 교양강좌가 문제가 되어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한 '조직'의 '배후'를 대라는, 이른바 1970년대의 전형적인 조작된 정치사건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

거기다 '서울의 봄'이 1980년 5월 신군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자, "겨우 되살아나기 시작했던 나라 안의 일에 대한, 정치에 대한 그의 관심과 희망이 또 다시 스러져" 가면서 그는 "절망적인 무관심"에 빠져들고 만다. 이영규가 특별히 정치현실에 민감한 인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고뇌는 당대를 산 지식인으로서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시절 해외 이주는 폭력적인 정치현실에 대해 개인이 맞설 수 있는 한 선택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친구가 누님이 있는 미국으로 떠날 때 이영규는 "미국이라도 갈 수 있는 친구의 처지가 부러운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현실이 불만스럽거나 마땅치 않으면 그 현실을 벗어나 살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다.

해외문제연구소에서 같이 근무했던 윤중령은 군을 떠나 미국에 뿌리를 내리고, 김현웅까지 유학차 미국으로 떠나고 앞에 말한 대로 친구 용화까지 떠나버렸다. 작품에서 1970·80년대 초의 정치적 현실과 이들의 떠남을 <소용돌이, 떠나가는 사람들>이라는 독립된 장으로 설정하고 있음은 이영규 자신의 이주의 선택에 정치적 현실의 암담함과 거기에서 파생된 주위 인물들의 떠남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 주기 위해서이다.

다음은 독재정권을 낳게 한 절대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분단체제와 거기에 따른 전쟁에 대한 걱정이 이주를 결행케 하는 한 조건이 된다.

아이들과 전혀 관계없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전쟁에 대한 공포심을 그녀는 지우지 못하고 있었다. 6.25때 피난 다니며 본 끔찍한 광경들과 피난 다니느라 고생했던 기억들을, 그녀는 불쑥불쑥 찾아오는 악몽이듯 떨쳐 버

리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되새김질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그런 굴레에서도 벗어나고 싶어했다. 그녀는 특히 피난 다니느라 국민학교 공부를 제대로 못 해 상실했던 기억을 늘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다.

(『세 도시 이야기』 하권, 233쪽)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인공의 아내는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이주에 동의하는 데 여기에는 아이들의 교육환경 보다도 전쟁에 대한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겠다는 이유가 더 앞서고 있다. 미국이 주자들 가운데 북한출신들이 상당수 있음은 그들이 전쟁을 피해 “아예 멀찌감치 안전한 곳을 찾아 태평양을 건너” 왔기 때문이며,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듣고 “남쪽이고 북쪽이고 초비상이겠구먼. 설마 전쟁이 일어나진 않겠지.” 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한반도에 드리우고 있는 전쟁 가능성이 이주를 선택하게 한 명백한 원인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주인공은 “가족이 미국에 왔던 근본적인 동기의 한 시발도 다름 아닌 그 전쟁이었다.”(『세 도시 이야기』 상권, 99쪽~100쪽)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동기의 한 시발도 다름 아닌 전쟁이었다”라고 했을 때의 전쟁은 앞서 아내나 주위 사람들이 보여주는 ‘공포’나 ‘안전’의 의미보다는 좀더 내면화된 그 무엇이라는 사실이다.

내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지 않으니. 그런 마음으로 그가 사실상 고향을 등진 것이, 그를 그 나라 그 땅에서 마저 떠나게 한 것이었다.

(『세 도시 이야기』 하권, 315쪽)

고향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란 전쟁과 결부된 그의 가족사의 상처와 관계된다. 중학시절 그는 큰형과 큰누나를 잃고 그 여파로 형수와 조카, 그리고 매형이 가족의 테두리에서 떠나감을 보아야 했다. 두 사람의 죽음으로 “드리워진 길은 그림자”는 집안은 물론 그의 가슴에서 결코 견힐 수가 없다. “그 차고 어두웠던 시절”은 대학시절 아버지의 죽음과 뒤이은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어디 가나 그는 그 혼자 몸”이라는 생각에 빠지게 한다. 그러므로 “이주 멀리 떠나고 싶었다”는 그의 독백은 젊은 시절의 한때의 방황에서 오는 단순한

감정적 슬회가 아니라 이미 영혼까지 지배하고 있는 교아의식과 방랑벽으로부터 나온 목소리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환상’과 ‘모험심’은 체질화된 그 무엇이다. 이런 심적 조건 위에 현실의 삶이 있다.

그는 월간부에서 편집국으로 옮겨 근무한다. 신문사 일은 일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타성과 나태로 빠져들게 한다. 다른 사람들과부터 대우받고 남들이 알아준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는 성취감과 흡족감을 느끼지 못한 채 허탈감에 빠져든다. 거기다 그는 작가이다.

자기의 일이어야 했다. 열과 성을 바칠만한 자기 일이어야 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일이란 말인가.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인가. 찾지 못하면 매양 허깨비처럼 이렇게 지내야 한단 말인가.

어쩌면 나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무엇인가 내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세 도시 이야기』 하권, 189쪽)

참된 자아성취에 대한 열망은 현실의 내 자신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고, 열망은 지금의 여기, 지금의 나가 아닌 다른 어디, 또 다른 나를 꿈꾸게 한다. 그러므로 그는 “어디론지 가고 싶었” 고 “어디론지 걸어가고 싶었다.”라고 말한다. 가고 싶은 그 어디가 ‘하늘 끝’이 아니라면 ‘다른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송상옥 소설에서 인물들의 이주동기는 지금까지 살핀 바대로 비극적 가족사에 의해 형성된 고향상실감에 뿌리를 두고 작가지식인으로서 목격하고 체득한 국내의 어두운 정치사회 현실에 근거한다.

그러면서도 불가피한 현실적 이유로 빠른 시간 내에 결행되는 이주가 아닌, 싹이 트고 그제 자라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긴 고뇌 끝의 이주이기에 거기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심리적 방어기제가 필요하다.

그것은 “한 번 더럽혀진 마음은 씻고 닦아 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가 아닌 다른 어디에서 나를 바꾸어 보는 일이 어렵다는 것, 어쩌면 이주에 대한 생각이 “환상에 지나지 않고 그는 그 환상에 빠져있는지도 몰랐다.” 라고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추궁하면서도 어느새 이영규는 자신이 어쩔 수없이 죽기보다

더 힘든 '더럽혀진 마음'에 사로잡혀 버린 걸 아는 것이다. 자기 열망의 깊은 병, 그것은 죽음과 등가물이다.

2. 이주의 삶: 소외와 단절의 메마른 삶

이제, 마음의 열병으로서의 이주를 결행한 뒤 이주자들의 삶을 살펴보자.

“여기서 한국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냐? 일치 감치 유학이라도 와서 공부를 할만큼 한 사람들 말고, 요즘 이민 오는 사람들이 생업으로 할만한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네. 나도 처음엔 이것저것 힘든 일 더러 해봤지.”

친구는 허허 한번 웃고는 말을 이었다.

(〈버려진 방〉, 『광화문과 햄버거와 파피꽃』 260-261쪽)

『세 도시 이야기』의 이영규와 〈버려진 방〉의 ‘그’는 신문사 근무경력과 작가라는 점에서 동일한 인물이다. 그러므로 〈버려진 방〉의 친구는 『세 도시 이야기』의 김용화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도착 뒤 그가 친구에게 듣는 첫 질문은 ‘구체적인 계획’이 무어냐 하는 것이다. 그는 “몹시 당황”한다. 현실화된 이주는 이주 전의 동기가 무엇이었던 모든 걸 무력화시킬 수 있을 만큼 남의 땅에서의 생존 그 자체인데, 심리적인 동기가 지배적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데서 벗어나 다른 세계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바람”이 고착되었던 그로서는 실로 막연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먼저 미국을 여행했을 때 친구와 의논했던, 그가 한국에서 쓴 소설을 번역 출판해 보자는 일은 출판사 쪽의 거절로 이미 끝난 상태다. 그 일이 그를 크게 실망시킨 건 아니다. 되었으면 좋았을 일이라는 정도의 기대만 가졌기 때문이다. 쉬면서 할 일과 살 방도를 궁리해 보기로 하지만 마음은 쉬 잡히지 않는다. 낮에는 버스를 타고 로스앤젤레스 시내와 교외를 쏘다니고, 밤에는 책을 뒤적거리나 텔레비전을 본다. 바뀐 환경 때문인지 작품을 쓰는 일도 잘 되지 않는다.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다 결국 여기서 살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주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 운전면허를 따고, 직장을 얻고 법적 신분보장을 받는 일을 하기로 한다. 이주가 곧 생활임을 그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에 이르기까

지 이주자들은 극심한 심리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세 도시 이야기』의 이영규는 온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다 집어치우고 서울로 돌아가 버릴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선 이주 준비 차 혼자 왔다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한 밤중 텅 빈 빌딩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이주자는 드물 것이다. 하지만, 그걸 실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돌아간다는 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나 다름” (『세 도시 이야기』하권, 246쪽)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주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그들은 이 땅을 ‘버리고’ 떠났다는 따가운 눈총을 한국에 ‘남은’ 이들로부터 받고있지 않은가.⁶⁾

그러므로 이주자들은 자기의 선택을 수궁해야 한다.

그렇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도 모르게 키워 온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은 어떻게 되는가. 또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사람들이 부러워한 그 안정된 직장을 버린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반려자인 아내의 기대를 저버릴 수는 더욱 없었다. (중략) 그가 설사 이 곳에서 살아가는 일에 큰 정신적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우선 가족을 데려와 살만큼 살아보는 일이 중요했다.

(『세 도시 이야기』 하권 246쪽)

그는 결국 한국에서 스스로 뿌리치고 나왔던 신문사 규모의 “몇 백 분의 일도 안 되는” 현지 신문사에 들어간다. 영어가 능통하지 못해 미국인 회사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규모가 적은 한국인 회사에 들어가기도 어렵다면, 자기가 해오던 일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도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러한 선택이 그가 꿈꾸었던 미국에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다.

6) 이런 인식에는 이주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원식은 “해방 이후 미국과 다양하고도 기발하기조차 한 방법으로 연결을 맺으려고 안달한 한국지배층의 행태와, 60년대 중반 이후 몰아친, 먹고살 만한 사람들의 미국이민 물결에 대한 속깊은 냉소에 말미암을 것이다.”고 지적한다(최원식, 앞의 글, 25쪽). 1970·80년대의 독재정권에 대한 실망과 염증으로 인한 이주도 이 문맥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위기를 포함하여 이주의 형태가 다변화된 이즘에 그런 부정적 시선을 두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이 달라졌단 말인가. 공기가 달라졌단 말인가, 바람이 달라졌단 말인가. 햇볕이 달라졌단 말인가. 설사 그것이 달라졌다 해도 무슨 큰 뜻이 있단 말인가. (『세 도시 이야기』 하권, 252쪽)

특히 그를 괴롭히는 건 자신의 삶의 궤적이 아버지의 그것과 닮아 있다는 것이다. 그의 부친은 일제강점기에 한국에서 살기 어려워 일본으로 건너갔고, 거기서 고생 끝에 그런대로 기반을 잡았다. 그러다 해방이 되자 “이뤄 놓은 것을 다 던져 버리고” 돌아왔다. 조국이 그의 부친에게 준 전 예전의 가난과 더불어 아들과 딸과 외손자까지 앗아간 전쟁뿐이다(하권 239쪽). 자식인 그 역시 안정된 삶을 팽개치고 다른 나라에서의 삶을 택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그는 “그런데 나는 지금 무엇을 어찌겠다는 것인가. 무슨 좋은 꼴 보겠다고 남의 나라에 가서 빌붙으려 하는가.” 라고 자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가 프로 야구와 미식 축구에 빠지고 자연에 정신을 빼앗기며 바깥을 나도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중계방송 시청으로 밤을 새고, 선수들의 이름과 성적을 외울 정도가 된다. 일년 내내 푸른 하늘과 나무를 볼 수 있는 땅, 그런 천혜의 자연 풍광을 볼 수 있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겨우 “여기서 살 가치가 있다고 여겨질 정도”이다. 그러나 밖으로만 나돌게 한 날씨와 자연도 계절이 뚜렷하지 않아 일년이 하루 같다. 그가 사는 남부 캘리포니아의 밝고 더운 날씨는 차츰 그를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멍청하게” 만든다.

모든 일은 제 갈 길을 향해 질로 굴러가고 있었다. 그는 또다시 자기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남의 일, 남의 이야기에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또한 지난날처럼 그에 따른 자책감을 아울러 키우고 있었다.

(〈버려진 방〉, 『광화문과 햄버거와 파피꽃』, 265쪽)

쓰고 싶은 글을 쓰지 못하고 “정말 일 같지” 않은 신문사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이런 지적 낭비는 이주자들의 공통된 특성이다. 윤중령은 세탁소를 하고 김현웅은 공부를 포기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한다. 고위 공직자 출신의 장선배라는 인물은 햄버거 가게를 하다 미니 슈퍼마켓을 하고 (〈창을 열고〉),

대학을 나온 여자는 식당주방의 허드렛일부터 도시락 행사까지를 한다(<꽃의 그늘>). 그러므로 이주자들은 서로에 대해서 왜 이민을 왔는지, 한국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묻지 않는 게 ‘불문을’처럼 되어 있다 (<산타모니카에서의 죽음>).

이 곳에서의 한국인 이민자들의 삶 자체가 사막에서 사는 것처럼 거칠고 메마른 것이었다. 다른 민족들에 둘러싸인 삶에다 한국사람들끼리도 배경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터놓고 지내기가 어려웠다.
(『세 도시 이야기』 하권, 286쪽)

익명성과 자기은폐는 타향(이국)에서의 삶의 조건일 지도 모르지만, 사막에 서처럼 고립되어 과거와 현재를 묻지 않고 미래처럼 푸석대는 인간관계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다 미국적 문화나, 개인주의의 문제까지 개입되어 이민의 삶을 힘들게 한다.

작가의 분신에 가까운 인물들이 미국생활의 이질감이나 특징으로 꼽고 있는 게 혼자 음식을 먹는 것과 고속도로에서의 운전이다. 자동차 안이건 길에서건 사무실에서건 혼자 음식을 먹고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걸 보면서 그와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 정도를 넘어 그들과는 “이 지구로부터 수십만, 수천만, 수억 광년이나 떨어진 은하계까지의 거리보다 더 멀게”(〈길〉) 느껴진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혼자 먹는 게 개인주의와 편리주의의 미국식 모습일텐데 그는 그것을 문화적 차이 이상의 극단적인 인간관계의 단절, 소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웃집은 있어도 이웃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 자살한 여자가 한국인이라는 걸 뒤에 아는 그런 땅에서 이주자들은 살고 있다.

그러한 단절감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물결과 연관된다. 알다시피 미국은 자동차가 없이는 기본 생활이 되지 않는 나라이다. 밖으로 뛰어나갈 수도 없고 소리를 질러도 들어줄 사람 없는 외부세계와 단절된 조그만 상자 속 같은 차에 제각기 앉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똑같이 넓은 “길 위를 달리는 것은” 인간이란 근원적으로 “고독한 존재”임을 생각하게 한다. 또 다르게 고속도로가 허용하는 일정한 속도란 바로 미국이란 나라가 그 속도에 의해서 유지되

는 나라라는 인식을 하게도 한다. 프리웨이에 오른 차들은 “뒤에서 차들이 끊임없이 따라오기 때문에 비가 오든 말든, 안개가 끼든 말든, 눈이 부시든 말든, 속력을 늦출 수” 없다(<딸의 캠퍼스>). 미국에서의 삶도 그렇게 쫓기듯 살아야 하는 곳이다.

‘속도를 늦출 수 없는’ 삶, 그것은 바쁘고도 힘든 삶이다.

노동강도는 직종에 관계가 없이 높아 회계사도 “눈이 팽팽 도는 나날”을 보내야 하고(<버려진 방>, 가게를 하는 이는 일년 중 “쉬는 날이라곤 이틀인가밖에” 되지 않는다(<보복>). 하지만 그게 “죽음보다 더 심각한” 이곳의 현실이다. 이주에 대한 열망이 죽기보다 더 힘든 것이었다면 이제 미국 땅에서의 생존이 죽음보다 더 심각한 게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주자들의 힘든 삶이 노동의 이유와 그 가치까지 상실하게 까지 이른다는 점이다. 우리 식의 잡화상을 운영하는 이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노릇을 계속하고 있는지, 목적도 무엇도 아무 것도 없어진 지 오래” 인 채, “그저 일하기 위해 일”을 한다(<보복>). 이윤 추구가 개인의 절대적 욕망이 되는데 아무런 제지가 따르지 않는 자유주의 경제제도 하에서라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까지 잃게 하는 과도한 일 중독현상은 이주자들 삶의 특수한 조건을 넘어 인간성 상실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⁷⁾

한편 생존의 어려움은 그들의 삶이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과는 관계된다.

한국에서 대기업의 중견간부로 근무하다 이주하여 가게를 연 인물은 좀도둑과 강도들의 등살에 못 이겨 ‘서부 사나이’의 복장에 쌍권총을 허리에 차고 지낸다(<쌍권총의 사나이>). 모르는 사람은 한국인이든 외국이든 모두가 경계의 대상이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4·29족인폭동과 노스릿지 지진은 이주자들의 삶

7) 노동의 개념에 대한 의견은 다양할 수 있지만, 노동이 “합목적적이고 의식적인 인간의 활동이며 또한 인간이 자기의 고유한 행위를 통해서 자연과의 신진대사를 매개하고 조정하며 규제하는 과정”(임석진, 『철학사전』, 이삭, 1983년, 70-71쪽)이라는 원론적 입장에서 볼 때, 노동의 목적을 상실하고 자기 규제를 벗어난 소설 속 인물들의 노동형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된 것인지를 말해주는 사건이다. 한 흑인에 대한 백인경찰의 폭행과 그 사건의 무죄판결이 몰고 온 흑인들의 항의시위가 한인사회로 불뚝이 튀어 수많은 가계가 불타고 인명 손상까지 낳은 게 4·29폭동이다. 유색 소수민족인 한국인들이 “이 곳에서 사는 한 언제까지나 짙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멍에, 원죄”인 (『세 도시 이야기』 상권 96쪽) 인종문제까지 내포되어 있는 이 사건은 이주의 삶이 “한날 모래 위의 누각 같은” 것에 지나지 않지 않는다는 심각한 물음을 던지게 한다(『세 도시 이야기』 상권 89~97쪽). 그러면서 미주 한인들의 상당수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지진대가 통과하는 지역이다. 지진을 겪으면서 당하는 공포와 피해를 소재로 한 「흔들리는 땅」에서 이주자들은 그들의 삶이 “외딴 섬에 사는 것”을 확인하고, “흔들리는 땅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⁸⁾

그러므로 이주가 한갓 환상이었고 이주의 삶이 환상이 깨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걸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말하거나와, 그때만 해도 나는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 미국이 안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환상을 가졌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일는지 모른다. 다만 그 환상이 자꾸만 멀리 달아나기만 해서, 아직도 그에 접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

(『우리들의 날』, 『소리』 137쪽)

인물들은 그 환상이 점점 깨어져 가는 과정이 이민생활 그 자체인 줄 스스로 알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그 환상을 자신이 붙들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허망한 기대심리 속에 살아간다. 신기루인줄 알면서도 또 다른 신기루를 쫓는 그런 심리가 이주자들에게는 존재한다. 그런 심리는 자기기만과 연결되기도 한다.

이민생활의 고단함과 정신적 허탈감을 직시하지 않은 채 “지구상 최고의 도시에 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예술을 접하며, 최고의 기분에 빠져들 수 있는

8) 이태동은 “땅이 흔들리는 현상과 그에 대한 경험에 특별한 관심을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물리적 자연현상 못지 않게 미국에서의 그의 꿈과 생활의 바탕이 무너져가고 있음을 구조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이태동, 『광화문과 햄버거와 파피꽃』, 창작과비평사, 1996년, 해설, 323쪽).

은혜” 속에 산다고 큰소리치던 회계사 일을 하던 친구가 소식도 없이 사라지자 <버려진 방>의 화자는 “자기 기만의 생활에” 회의를 느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도서관 사서로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미국시민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모범시민”으로 살아가던 이는 그 동안의 삶이 결국 “뿌리 박히지 않았던 공중에 떠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기만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말과 같이 아픔은 시작되었다>).

“온 길을 되돌아볼 틈”도 없이 바쁘고 힘든 이주의 삶은 엄청난 비극으로 끝나기도 한다. 고위 공직자 출신의 장선배는 국내 정치현실이 싫어 이주했다가 자신의 선택에 대한 회회와 ‘잡념’을 없애기 위해 몸을 혹사하다 쓰러지고 (<창밖은 황혼>), 대기업의 중견간부로 근무하다 이주한 뒤 가게를 연 인물은 오발로 재산을 다 날리고 가족과 헤어져 빈민구제소에서 죽어간다(<쌍권총의 사나이>). 정년을 몇 해나 앞두고 이민 온 노교수는 정착과정의 초조감과 옛 애인과의 연락을 두고 부인과 불화를 빚다 자살한다(<산타모니카에서의 죽음>).

이주자들은 그들의 열망 때문에 이주를 택했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환상이 깨어져 가는 과정을 겪으며 이국 땅에서 살아간다. 특히 『소리』에서 보여주는 이민생활에 대한 격렬한 고달픔과 비관적인 시선은 고향에서의 소년시절까지 찾아가는 『세 도시 이야기』의 이영규의 이야기를 통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안정을 찾으면서, 『광화문과 햄버거와 파피꽃』에서는 고된 이주의 삶이 정리되고 있다.

3. 되돌아보는 시간과 역이주: 인간존재의 문제로서의 디아스포라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다소 부정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시간적 존재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주자들은 자기회의를 거쳐 높은 노동강도와 자기정체성과 싸워가며 이주생활에 익숙해진다. 어떤 식으로든 생활의 안정을 찾고 자식들은 성장한다. 자식들은 이주의 한 이유였기에 그들은 희망이 보람이 된다.

은퇴를 앞두고거나 은퇴 후 이주자들은 다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진다. 송상욱 소설의 인물들도 그러하다.

그 가을에서 봄에 이르는 세 계절, 그는 미국에서 산 열세 해 동안 가장 편안하고 흡족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원 몇 해 지난 생애를 돌이켜 봐도 이처럼 소중한 독특하고 독특한 경험을 가져본 일이 있었는지, 그는 쉬 떠올릴 수가 없었다.

(〈딸의 캠퍼스〉, 『광화문과 햄버거와 파피꽃』 5쪽)

한국회사의 로스앤젤레스 지사에서 열 두어 해를 근무하다 휴직 형태로 나온 주인공은 “미국생활을 정리하는 글을” 쓰려 한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이영규나 <버려진 방>의 ‘그’와 동일한 인물이다. 그는 퇴사 후 기숙사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딸을 위해 고속도로를 달려 학교까지 데려다 주며 딸의 장래를 의논하고 자신의 지나온 이주의 삶을 생각한다.

“남의 나라에 와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면서 “아내나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지도” 못했다고 자책도 해보지만, 명문 대학 졸업반인 딸은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정되어 있고, 그 위의 아들도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모든 미국 이주자들의 공통된 목적 중 하나인 자식들의 교육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내는 가게를 열고 있지만, 나이에 관계없이 경제활동을 하는 게 당연한 미국적 가치관에서 그게 잘못된 일도 아니다. 가족의 테두리에서 본다면 그의 이주가 특별히 잘못 된 건 아닌 것이다. 이런 가족의 형편은 작가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인물들이 나오는 『세 도시 이야기』와 『흔들리는 땅』에서도 동일하다.

한국에서 이영규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긴 세월 동안 미국 유학을 꿈꾸고 소망했던 김현웅도 ‘성공’한 편이다. 한국사람들에게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은 돈 잘 벌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룬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속에는 자식들 공부 잘 시키는 것도 포함” 되는데, 김현웅은 안정된 생활 위에 아들은 로스쿨을 다니면서 변호사를 목표로 하고 있고 딸도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영규는 김현웅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김현웅 스스로도 윌리엄 포크너나 헤밍웨이를 배운 영어를 복덕방을 하면서 써먹기는 하지만, “미국에 눌러 앉아 사는 것으로” ‘소망’이 바뀌었다는 점으로 본다면 자족할 수 있다.

이영규는 미국에 온지 10년만에 과거의 윤중령을 직접 만난다. 이주 후 윤중령은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세탁소를 열었다. 외국

어 실력이 탁월하다지만, 그게 미국에서 직장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세탁소 일은 생활을 안정시켜 주고 “이젠 아무 테에도 나서지 않고 은둔자처럼 살고 싶은” 자기 처지에 오히려 맞는다고 윤중령은 말한다 (『세 도시 이야기』하권, 291쪽). 가족 이야기는 없지만, 윤중령도 김현웅 정도의 아이들 교육은 시켰다고 볼 수 있을 테니 그의 이주의 삶이 현실적으로 특별히 잘못된 것도 아닐 것이다.

『세 도시 이야기』상권, <그들만의 미국- 환송회에 나온 사람들(1)(2)> 편에는 이영규 보다 미국생활이 오랜 사람들이 여럿 등장하여 그들이 택한 이주의 삶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다. 그들이 하는 말의 한가지 공통점은 <어디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이다. 이때의 어떻게 사느냐에 엄청난 ‘성공’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960년대 말 월남을 거쳐 미국에 와서 건설노동자로 시작하여 주유소, 자동차 정비소 일 등을 하다 캘리포니아의 휴양도시에서 자그마한 가게를 열고있는 박이라는 인물은 여러 직종을 거치며 고생을 했으면서도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지만, 대신 가족이 먹고 살만한 안정된 자리를 찾아 ‘만족’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는 “어느 땅 어느 하늘 아래서든 만족하고 살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세 도시 이야기』상권 61쪽).

간호사인 아내를 따라 이주한 전직 교사출신의 장씨는 호흡치료사 자격을 따서 생계로 삼다 은퇴했는데 그는 미국의 사막에 매료되어 반쯤 은둔생활을 한다. 어린 시절 전쟁으로 인한 고향사람들의 비극을 목격한 그에게 “하늘과 땅이 하나같은 이 곳의 무한한 넓이에 모든 것이 용해”된 사막은 또 다른 고향이다. 그러므로 장씨는 “어디서나 만족하고 살면” 그뿐, “바로 그 곳이 고향”이라고 말한다. 이제 이주자들은 ‘타향의 고향화’⁹⁾문제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9) 타향이 늘 타향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속담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한다. 라틴어 속담의 “지내기 좋은 곳이 바로 고향이다.”란 말이나, 우리나라의 “타향도 정들면 고향”이란 속담이 그것이다. 보다 본질적으로 고향에는 실제고향과 이상고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전자가 원고향이라면 후자는 타향이 고향적 이미지와 분위기를 지니고 또 개인이 그곳에 동화되어 고향화된 것이다. 이 후자는 ‘이상적으로 만들어진 고향’을 뜻한다(전광식, 『고향』, 문학과학사, 1999년, 195-196쪽).

한편으로 이들은 “끝이 없는 고달픔과 함께 욕구불만 같은 것이 덕지덕지 쌓일 뿐인”인 이주의 삶을 이겨낸 사람들이다. 자식 교육이든, 경제적 성공이든, 자기만족이든 그들은 나름대로 이주의 삶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영규나 <버려진 방>의 ‘그’는 그럴 수 없다. 이주를 결행한 절대적 요인이 소용돌이치며 이는 내면의 자기 바람 때문이었듯이 그에게 중요한 건 여전히 자기 내면이다. 그렇게 자기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준 건 직장에서의 퇴직이다. 그러므로 그는 대학졸업반인 딸을 통학시키면서 회사를 다니는 동안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생각해 볼 틈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작가이면서 생활의 방편으로 신문기자였던 그가 자기를 되돌아본다는 것은 어떤 축면인가. 그에게 우선되는 건 작가로서의 삶이다.

우선 그는 미국에서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주 후 그는 “결국 머릿속의 현실은 꿈이고 환상이고 착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 그것을 인정한다는 건 괴로운 노릇이지만, 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심정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직장생활을 했다. 하지만 그를 줄곧 괴롭힌 건 <버려진 방>에 토로되어 있듯이 좁은 방 한편에 아무렇게나 쌓아둔 책들이 “무수한 칼날 같은 것이 되어 그의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파는 아픔이다.

오래라면 오랜 미국 살이는 눈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같은 나날에서 벗어난 그 생활 자체가 또 다른 눈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나날이란 것, 그에게 어떤 기대를 갖게 했던 낯선 하늘 밑에서의 삶도 그때까지 살아왔던 똑 같은 삶이란 것, 타고 타서 꺼져 가는 불길의 마지막 남은 불씨 같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한 조각 환상, 작디작은 꿈의 부스러기란 것은 사실 어디에도 없었음을 일깨워준 과정에 지나지 않았다.

(<광화문과 햄버거와 파피꽃>, 『광화문과 햄버거와 파피꽃』 299쪽)

자신이 선택한 이주의 삶이 경제적으로 가족을 안정시키고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자신의 이주가 “나 자신의 일을 찾지 못해, 진짜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비롯된” 방향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반드시 ‘할 일’을 찾아야 한다(하권, 299쪽). 이런 식으로 여기서 살 수가

없다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데 갈 데는 “한국밖에” 없다. 그것은 죽기보다 더 어려운 마음의 병으로써 이주를 꿈꾸었을 때 그 대상국가가 미국이었던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된다. 한국은 고국이기 때문이다.

역이주는 많은 이민자들이 마음먹거나 결행한 일이다. 『세 도시 이야기』의 윤여사나 조종사 출신의 다른 박씨, 그리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김씨조차도 그러하다.¹⁰⁾ “자기 자신의 마음 속 갈등만 제외하면” 여기서 살만하다는 김현웅도 역이주를 생각해 봤지만 그 동안 자기만 ‘퇴보’한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윤중령은 “어디 가서 무얼 하기는 너무 늦었” 다고 판단해서 포기한다.

송상옥 소설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역이주에 대한 의식은 인물들의 나이와 관계된다.¹¹⁾ 그들은 한국전쟁을 소년시절에 겪은 연배들로 이국 땅에 살지만 뼈까지 묻어야 할 지에 대해서는 망설이는, 귀소본능을 간직하고 있는 세대들이다.

“삶이란 늘 무엇인가를 찾고 또 쉬지 않고 무엇을 하는 것”이라는 걸 아는 그는 미국으로 이주할 때 그랬던 것처럼, 혼자 먼저 한국으로 떠난다. 한국으로 돌아와 보낸 일년 5개월의 생활과 의식이 『광화문과 햄버거와 파파꽃』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혼자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고 아는 이들을 만난다. 이주했으면 그

10) 한국으로의 역이주가 보편적인 현상임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갔다가 많이들 도로 온다더군요.”라는 김씨의 말에서 역이주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송상옥도 한국에 머물다 결국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이 이주의 땅에서는 고국을, 고국에서는 다시 그들이 한 시절을 부대끼 이주의 땅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고향’에서 뿌리 내리고 사는 이들에 비해 디아스포라만의 고통을 안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11) 송상옥 소설의 인물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살거나 그런 생각을 해 본다는 점에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작가’들의 의식과는 구분된다. 이동하는 <20세기말의 재미한인 소설>의 특성으로 김혜령과 한영국의 작품분석을 통해 “<일단 한국을 떠나 미국에 이민해 온 이상에는 미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성공적으로 적응해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재미한인 작가들 대다수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20세기 초 재미한인소설의 ‘체류자’의식과의 대비에서 가능하다(이동하, 앞의 책, 339쪽). 그런 점에서 본다면 송상옥은 두 작가군의 중간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곳에서 끝까지 잘 살아야지 왜 돌아왔느냐는 주위의 시선과, 꼭 한국으로 와야만 글을 쓸 수 있느냐는 자기 질문에 갈등하면서 광화문과 종로 일대를 더운 여름 날 땀을 흘리며 걸어다닌다. 그 곳은 예전 직장이 있던 곳이라 아는 이들을 만나기 좋고 드나들 서점이 있으며 간편한 식사가 되는 햄버거 가게가 있기 때문이다. 도착한 칠월 중순부터 구월이 되기까지 그가 서울시내를 “땀을 뻘뻘 흘리며 견고 걸어서” 돌아 다녔다는 건 이주를 선택했던 자신에 대한 자기 추궁의 길, 고난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글을 쓰는 것 외에 안정된 정착을 위해 할 일을 찾아보지만 여의치 않다. 선배와 친구들은 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런데도 처참한 기분보다는 마음이 “태평스럽기 그지” 없는 것은 자기 인생에 플러스가 되었던 마이너스가 되었던 스스로가 택한 이주와 역이주의 짐을 고스란히 받아들일겠다는 열린 마음 가짐 때문이다.

고향에 가서 달라진 산천을 확인하고 변한 친구들의 인심을 보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는다. 그가 서울에서 미국을 회상하며 “침묵과 정적”의 소리를 듣는 사막과 양귀비의 일종인 파피꽃의 물결을 떠올리는 건, 사람 모습 하나 찾을 수 없는 그 삭막한 삶의 ‘으스스’함과 아름다운 꽃만을 보고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깨달음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그는 “또 분명한 것은 그도 언젠가는 이곳의 방식에, 사람들에게 휩쓸리고 그것들에 물들어가리라는 점”이며 그것이 이승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¹²⁾ 오랜 내면의 바람에 휘둘리며 방랑의 삶을 산 이가 원 중반을 넘기어 고국에 돌아와 내린 자기 인생의 한 결론인 것이다.

그는 고국에 돌아온 일 년 반 동안 5천장의 원고를 쓴다. 그 중 가장 귀한 작업은 “차고 어두운” 그 자신과 그의 집안 이야기를,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이주와 역이주의 삶을 쓴 일이다. 우리가 이주의 삶을 다루면서 중심에 놓고 읽은 『세 도시 이야기』, <버려진 방>, <딸의 캠퍼스>, <광화문과 햄버거와 파피꽃>은

12) ‘이 곳의 방식에, 사람들에 휩쓸리고’ 함께 살아야야 한다는 평범한 말을 작가가 하고 있는 것은 송상옥의 초기 작품 세계의 ‘부조리한 인간현실에 대해 자학적인 분노로 저항하는’ 주제를 염두에 둘 때 이해될 수 있다. 이태동은 이런 작가의 발언이 초기작인 <바닥 없는 합정>에서 발견한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없이 방황한 끝에 ‘힘겹게 발견한 리얼리즘적 현실’이라고 말한다(이태동, 앞의 책, 해설, 318-328쪽).

그렇게 만들어졌다. 우리의 생은 제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먼길을 우회하면서 더운 ‘땀’ 아래를 걷고 또 걷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송상옥의 인물들은 ‘떠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의 완성을 위해 ‘고난’을 택하는 이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선택에 세속적 의미의 성공과 실패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송상옥소설의 인물은 끝까지 자기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하다. 그러기에 정착한 이역 땅에서 고단한 현실과 정신적 피로를 이겨낸 뒤에도 자기만족이나 안주에 머물지 않으며, 타향의 고향화 문제에도 집착하지 않은 채 뒤늦은 나이에 어려운 역이주를 결행하고, 거기에 따르는 좌절감과 상실감까지도 고스란히 자기 것으로 한다. 그것은 결국 송상옥이 이주의 문제를 공간의 차원이 아닌 근원적 인간 존재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Ⅲ. 결론

지금까지 송상옥 소설에서 작가 자신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주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20세기 중·후반의 해외 이주가 19세기말이나 20세기초처럼 민족의 고난에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임은 확실하다. 그 선택이란 이주의 이유가 개인적으로 무엇이든 죽기보다 더 어려운 마음의 병을 앓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 윤중령이나 김현운은 이 땅을 떠났고, 이영규, 또는 그의 또 다른 이름인 ‘그’도 이주자가 되었다. 이영규는 전쟁이 가져다 준 가족사의 아픔에서 기인된 근원적인 고향상실 의식과 폭력적인 정치현실과 타성에 젖은 생활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를 바꾸고 싶은 근원적인 열망에 의해 이주를 한다.

그러나 현실화된 이주는 이주 전의 동기를 단번에 무력화시키는 남의 땅에서의 생존, 그 자체일 뿐이다. 그들은 미국을 상징하는 프리웨이의 속도감에 떠밀리고 개인주의의 팽배에서 오는 소외에 시달리면서, 한국에서의 학력과 직업에 관계없이 힘든 일을 하며 자식들을 키우고 산다. 고국으로 되돌아간다는 건 자기자신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쉬 생각할 수 없다. 이영규는 자신의 선택이 과거 아버지의 삶을 닮아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괴롭지만 자식들을 대학원까

지 보내면서 직장에서 은퇴한다. 이제 자기를 되돌아 볼 수 있다.

이영규는 미국에서의 삶이 또 다른 높이였다는 걸 알고, 또다시 자기를 바꾸어 보기 위해 역이주를 결행한다. 이주가 어떤 면으로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 선택이었기에 자기 고난의 상징으로 그는 돌아온 고국에서 더운 여름 땀별 아래를 걷고 또 걸어 다닌다. 고향이 달라진 걸 확인하고 생활을 위해 적당한 일 자리를 구하는 일에 실패하지만 그는 자신을 이주의 열망으로 들뜨게 했던 어둡고도 차가웠던 가족사를 글로 쓰면서 자기를 정리한다.

이주 초기 『소리』에서 보여주는 이주 생활의 고단함과 거기에 따른 부정적 시선은 지진과 폭동조차도 이주의 삶의 한 연장선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익숙한 이주의 삶을 보여준다. 그리고 『세 도시 이야기』에서 이주 전후와 고국으로 되돌아옴을 담담하게 엮어낸다.

인생이란 안정되고 고정된 무엇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부름에 충실히 답하는 것, 이주의 문제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문제임을 송상옥은 말해주고 있다. 그게 송상옥이 그려낸 20세기 후반 이주자의 자기초상이다.

주제어: 송상옥, 이주자, 이민문학

참고문헌

- 강성천, 「한국문학의 또 다른 영역」, 『문학정신』, 1987년 6월호.
권용립, 『미국의 정치문명』, 삼인, 2003.
임석재 감수, 『철학사전』, 이삭, 1983.
이동하·정효구, 『재미한인문학연구』, 월인, 2003.
전광식, 『고향』, 문학과지성사, 1999.
이태동, 『부조리와 인간의식』, 문예출판사, 1981.
최원식, 「민족문학과 디아스포라」, 『창작과비평』, 2003년 봄호.
윤재근, 『한국현대문학전집』 44권, 삼성출판사, 1978.
김인환, 「시대의 한 징후」, 『창작과비평』, 1976년 봄호.
유종호외, 『한국현대문학 50년』, 민음사, 1995.
유희석, 「한국계 미국작가들의 현주소」, 『창작과비평』, 2002년 여름호.
홍기삼, 「한국문학과 재외한국인문학」, 『작가연구』 제3호, 1997.

<Abstract>

Dream and Life of the Migrants Emigration
- with Song, Sang-Ok's work as the Central Figure

Cho, Kap-Sang

This thesis tries to analyze the various aspects of *migration* through the characters who seem to be the alter-egos of novelist himself. While migration to foreign countries in the 19th and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was forced by the tragic situation of Korea, it became a matter of individual choice after 1950. No matter what the cause of the choice is, it inflicted an unendurable pain upon the person who made it. Lieutenant colonel Yoon and Kim, Hyun-Woong had to pass the ordeal and Lee, Young-Kyu, or 'He' as he was called in the novel, was also one of such migrants. Lee made up his mind to escape from the violent political reality and disgusting daily routine. He wanted to change his selfhood altogether by the migration.

But after the migration he had to face the cruel reality of it, that is, just living from hand to mouth in the desolate foreign country. Migrants were harassed by the speedy life style of Freeway, and annoyed by the inhuman individualism surrounding them. But they could not go back to their homeland easily because it would be the total negation of their changed selfhood.

Lee finally decided to migrate back, thinking his life in America was, after all, just another trap. In Korea he tortured himself by walking endlessly under the hot summer sun. He wanted to express his remorse about his wrong decision in that way. After seeing the changed reality of the native town, he began to write his family history.

26 한국문학논총 제35집(2003. 12)

Key Words: Song, Sang-Ok, the Migrants Emigration, Literature of the
Migrants Emigration